

제목: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The Love and Mercy of Jesus

본문, 마태복음 Matthew 8:1-4 절

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When Jesus came down from the mountain, large crowds followed Him.**
2.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And a leper came to Him and bowed down before Him, and said,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Jesus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him, saying, "I am willing; be cleansed." And immediately his leprosy was cleansed.**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And Jesus said to him, "See that you tell no 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present the offering that Moses commanded, as a testimony to them."**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 오시니 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1 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4:25-5:1 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내용이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었으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문둥병자는 다른 질병과 달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이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자들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7 장 11-12 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곳에서 당시의 문둥병자들의 생활과 삶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 문둥병자들은 유대라고 하는 남 이스라엘에서도 살 수 없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 이스라엘에서도 살 수 없는 그 사이에 한 촌 즉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간구함 속에서 긍휼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 살 수 없었던 문둥병자 중에서 이곳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문둥병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본문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수 없는 문둥병자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 마음을 믿음으로 만들어 소망을 이루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것으로 가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허다한 무리들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실 때를 기다렸다가 자기의 문둥병이 있는 몸을 공개하였을 것입니다.

문둥병은 다른 질병과 달리 만지거나 접촉을 통하여 감염이 되기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공개했을 때 아무도 만질 수 없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간 세리 삭개오의 지혜와 같은 내용입니다(**누가복음 19:5 절**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해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네 사람의 믿음으로 지붕 위로 올라가 그 중풍병자를 내려 놓은 그 사람들의 믿음과도 같은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혜로 승화시킨 슬기로운 성령의 지혜인 것입니다(**마가복음 2:4 절** “우리를 인하여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예수님께 모두 밝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회개와 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의 내용으로 자신의 모든 죄와 잘못을 예수님에게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길을 내어 주고,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회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치유하실 때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긍휼과 그 죄의 회개의 중요성을 잘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3 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치료할 수 있으나 그 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 그 더러운 몸에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긍휼하심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고, 회개에 대한 모든 죄는 바로 용서 받을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용서와 치료를 받은 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라는 내용과 “저희에게 증거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는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검증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에 대하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간증은 복음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과 간증의 기준이 하나님의 종과 성경에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즉 목사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랑이나 성경적으로 인정하지 못한 자랑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내용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2 절). 마음이 믿음이 될 수 없고 믿음이 없는 마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이 믿음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1.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 요한복음 **15:9 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2.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모든 죄를 들어 내 놓고 회개하는 진실하고 정직한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2 절). 회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께 절대로 나올 수 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1.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1) 마태복음 **3:2 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 늘 회개가 있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 사도행전 8:22 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3.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들어 내어 놓은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1) 잠언 2:9 절 “그러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2) 시편 140:13 절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셋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복음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3 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 “기독교인”, “작은 예수”,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 야고보서 2:22 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1) 요한 1 서 4:8 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3.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마태복음 5:7 절 “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넷째, 오직 목사님이 계신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4 절)

1.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라는 말은 반드시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 마태복음 16:18 절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는 말은 성경을 기초에 두고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 요한복음 10:35 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2) 디모데후서 3:15 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3. “저희에게 증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마가복음 6:12 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